

원자력이 미래 한국의 추진 원동력이 되어야

김우식 |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간다면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원자력 시장에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

존경하는 이원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님과 한국원자력학회 김시환 회장님, 멀리서 한국을 찾아주신 알랭 뷔가(Alain Bugat) 프랑스 원자력청(CEA) 청장님, 순스케 곤도(Shunsuke Kondo) 일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님, 알리스테어 루이터스(Alistair Ruiters)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블베드 원자로(PBMR)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님, 칼리드 가님 알 알리(Khalid Ghanim Al Ali) 카타르 환경·자연보존최고위원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원자력 전문가 및 국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한국원자력기술상과 원자력국제협력상,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공로상을 수상하신 원자력 유공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간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고,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이산

화탄소 배출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화석 에너지의 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환경 보전에 부합하면서도 대량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자력으로 눈을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자력의 경제성, 친환경성, 안전성이 부각되면서 원전을 보유한 나라는 원전을 추가 건설하거나 장기 가동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고, 원전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도 원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지난 1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에너지 확보, 환경 보전,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원자력이 미래 한국의 추진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금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해 나갈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표준형원전, 신형경수로(APR1400), 원전용 개량핵연료 개발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는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 핵연료주기 핵심 공정 기술 개발, 원전 안전성 평가/검정 기술 개발, 그리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사선 기술 개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갈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자력 전문가 여러분!

정부는 지난 1991년 천명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선언」, 1992년 남·북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그리고 2004년 대내외에 천명한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 원칙」을 준수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투명성 확보 및 핵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FTA 체결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개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간다면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원자력 시장에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원자력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IAEA 등 다자간 협력은 물론, 미국 등 주요국과 양자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 발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IAEA와 협력협정을 체결한 지 5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와 같이 의미있는 해에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22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세계 각국의 원자력 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유익하고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전 설계 및 운영, 안전 규제 등 공동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활발한 기술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무한한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